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Liv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Chungbuk Province and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for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Focused on Social Relationship and Housework Implementing-

서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趙明姬

조교수 趙英姬

부교수 沈映

조교수 金大年

Dept. of Hom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Myoung Hee Cho

Assistant Prof. : Young Hee Cho

Associate Prof. : Young Sim

Assistant Prof. : Dae Nyun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분석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ocial relationship and housework implement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Chungbuk and to provide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for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data of this study a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and the data of 244 respondents are analyzed using Frequency, Contingency analysis, one-way ANOVA.

\* 1995년 교육부 지역개발연구과제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ost elderly tend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in their houses. The activity of social relationship is routine behavior and the satisfaction of social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is high. The older the age,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poorer in physical health, the more frequently they meet their neighbors and friends, the more frequently they go to establishments for elderly, and tend to play games such as a flower cards game. Secondly, the average time implementing housework by elderly women is about 3.63 hours. The attitude toward housework is a little negative. The average housework equipments owned by them are 4.8. The older, the poorer in physical health, the lower level of owning housework equipments, the shorter is the time implementing housework and the more negative is the attitude toward housework.

## 1. 서론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범세계적인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 6.1%에서 1990년 7.6%로 증가하였고, 노인단독가구는 1985년 4.1%에서 1990년 5.7%로 증가하였다(인구주택 총조사, 1991).

오늘날 노인단독가구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핵가족화, 그리고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 등 대체로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능력과 심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더우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부지원 체계가 미약한 현실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를 자식의 도리로 여겨왔던 우리의 가치로 인해 노인문제의 해결을 사회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으며, 선가정보호, 후사회보장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취업이나 분가 등으로 형성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도 노인단독가구에 크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연구의 경우도 체계적인 면이 부족하고 일회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으며, 노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한된 일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자료로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에 대해 노인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회적 관계가 축소됨에 따라 노인들은 외로움과 함께 성격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의 욕구충족에 필수적인 노동이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노인들의 경우 심리적·신체적 쇠약으로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수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 20-50대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충북 지역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8.4%로 타지역(평균 5.7%)에 비해서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이동이 매우 안정된 상태이므로 노인 복지정책 입안을 위한 분석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sup>1)</sup>는 충북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 및 관련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노인의 생활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관계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왔으나 현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약화됨에 따라 폭 넓은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Zay(1981)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는 개인간의 관계나 사회적 그룹간의 관계이며,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기준으로서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란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원조와 서비스, 정서적 지원, 충고, 칭찬 등을 획득한다(최정아·서병숙, 1992). 仙田裕子(1993)는 사회적 관계를 親類關係(血緣關係), 近隣關係(地緣關係), 友人·知人關係(關心緣·學校緣), 同僚(職緣關係)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가족·친척·이웃·친구와의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최정아·서병숙, 1992; 서병숙·김유정, 1993; 서병숙·이현, 1995).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성격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여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자녀와의 잦은 접촉은 노인의 사기를 높히는데 작용하며(최정아·서병숙, 1992), 노년기의 형제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의 하나로(윤희·한경혜, 1994), 사회심리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소외와 고독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임선영·김태현, 1994). 또한 이웃과의 접촉 빈도와 접촉 양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고독감이 감소하며(최정아·서병숙, 1992),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 이웃은 고독감을 이기게 하는 원천이 된다(서병숙·이현, 1995). 노인들은 퇴직등으로 인해 활

동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친구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갖는다(이가옥 외, 1989). 이러한 친구 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에게 있어서 동료 집단간의 관계가 가족이나 자녀와의 불충분한 관계에 대해 대안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서병숙·이현, 1995).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빈도를 통해 양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고, 특성·만족도등으로 질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ZAY, 1981).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빈도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형제보다는 친구·이웃을 더 자주 만난다고 할 수 있지만 형제와도 비교적 잦은 만남이 일어난다고 하였고(김태현, 1994), 친척과의 접촉 빈도에 비해 이웃이나 친구와의 접촉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아·서병숙, 1992). 그리고 단독가구의 노인중 친구가 있는 노인의 절반이상이 친구를 매일 만나고 있었다(이가옥 외, 1989).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 형성된 낯익은 장소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仙田裕子, 1993), 친구와 만나는 주된 장소는 본인 또는 친구의 집이 많았다(허병이, 1995).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단조롭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허병이(1995)에 의하면 친구와 만나는 경우 주로 무엇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담소·다과'와 같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변수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교육수준 등과 같은 환경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ZAY, 1981),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형제들과의 객관적 유대관계가 많

1)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하에 진행된 연구의 일부분으로, 선행된 경제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심영 외3,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996, 1-19.)의 후속논문임.

있고(임선영·김태현, 1994), 전화빈도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한 노인일수록 형제간의 방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윤희·한경혜, 1994). 또 연령이 높은 노인들은 노인정과 같은 복지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았다(조명희, 1996). 이상과 같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로는 교육수준, 연령,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을 뿐 노인들만이 사는 노인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단독가구 노인들은 외로운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박경란 외, 1995) 사회적 관계의 중요함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2. 가사노동실태

대체로 우리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20-50대 주부들이었으며, 노인들은 가사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노동자로서의 여자 노인의 역할은 노인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에 대한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이정수, 1991; 한은진·채옥희, 1995)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20-50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7.6-7.8시간 정도이며, 취업주부의 경우 5.5-5.7시간 정도가 되고 있다(임정빈, 1990; 한경미, 1990). 반면에 여자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4.5-5.3시간 정도로(이정수, 1990; 한은진·채옥희, 1995) 젊은 연령층의 주부들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자녀돌보는 시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奥村美大子(1983)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이 70대 전반과 후반 사이에서 손동작, 상반신동작의 가사노동시간의 감소가 현저하며,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은 60대에서 2.3시간, 70대 전반에서 2.0시간, 80-90대에서는 1.1시간으로 감소하였다고 했다(한은진·채옥희, 1995, 제인용). 따라서 여자노인의 가사노동시간은 젊은 연

령층의 경우와는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족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적당한 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식사관련시간을 보면, 여자노인의 경우 2.3-3.5시간 정도로(이정수, 1990; 한은진·채옥희, 1995) 전체 가사노동시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 비취업주부의 경우 전체 가사노동시간 7.3시간 중 4.4시간이 식사관련시간으로 나타난 한경미(1989)의 연구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가사노동태도도 가사노동 수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의숙(1981)은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이 가사노동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30대 주부는 가사노동을 좋아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주부는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였다.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한은진·채옥희, 1995)를 보면 여자노인의 가사노동 태도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가사노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활동별로 볼 때 음식만들기, 가족돌보기 등은 좋아하는 반면 설거지, 세탁, 청소 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진·채옥희, 1995).

가사노동의 수행은 가사노동자의 신체적인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노인들은 신체적·심리적인 쇠약으로 젊은 연령층의 주부들과는 달리 가사노동의 수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다. 따라서 가사분담원 혹은 가사노동기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가족내 유일한 가사분담원은 남자노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사분담원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남자노인들 또한 신체적인 쇠약함과 더불어 가사노동에 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사분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가족 외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결혼한 자녀 및 친척, 이웃, 사회 공적지원체계, 그리고 고용된 가사노동자 등이 해당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단독가구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기 쉬운 것은 결혼한

자녀나 이웃에 의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이란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다른 가구원이 도움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사고용자를 고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이러한 방법은 가계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사노동과 관련된 지원은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 경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관련 지원으로 경로식당운영, 재가노인봉사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활동내용으로 식사제공, 가사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충청북도, 1995). 그러나 재원이나 주관기관 등을 볼 때 아직은 실행의 폭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한편 가사노동기기는 가사노동을 단순화시키고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데 기여하며, 가사노동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으로 힘든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특히 단독가구의 노인에게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도 가정관리체계에서 가정기기 및 설비는 가사노동을 돕는 촉진요소로 보았다. 그러나 기기들을 관리·유지하는데 적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기기구입에 경제적 지출이 요구되므로 가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가사노동의 제 측면을 살펴볼 때 노인단독가구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20-50대 연령층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과는 상이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빈도, 장소, 활동내용,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실태(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태도, 가사분담, 가사노동기기보유)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Ⅲ. 연구방법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조사 문항은 자녀, 친척, 이웃, 친구와의 만남과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 빈도, 장소, 활동내용,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자녀, 친척, 이웃, 친구와의 만남 빈도와 전화통화 빈도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자기집, 자녀집, 친척집, 이웃집, 친구집), 집 근처의 야외공간(집앞, 놀이터, 공원, 약수터, 운동장, 산, 야외, 낚시터),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공시설(노인정, 마을회관, 복지회관, 복덕방·예비조사 결과 복덕방에 자주 가는 노인들이 많았음), 상업공간(시장, 백화점, 음식점, 다방, 주점),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5공간으로 나누었다. 사회적 관계시 직접 만남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은 소일활동(담소, 산책), 식사(식사, 음주), 오락활동(화투, 트럼프, 장기, 바둑, 마작), 취미활동(운동, 영화감상, 등산, 낚시, 서예), 종교 및 사회참여 활동(종교활동, 봉사활동), 야외 나들이(구경, 쇼핑, 여행, 야유회) 등 6가지 활동으로 나누었다. 전화통화에 의한 사회적 관계 내용은 일상적 대화, 도움 요청, 도움을 주는 대화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는 3점 척도로 재부호화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실태는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태도, 가사분담, 가사노동기기 보유의 네 측면으로 구성하였고, 가사노동태도와 가사분담은 청소 및 집안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가사노동태도는 3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6개 지역(제천, 충주, 청주, 청원, 옥천, 진천)의 60세 이상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토대로 재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1995년 11월 15일-12월 15일에 걸쳐 면접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접조사원 25명은 2차에 걸친 면접방법교육을 받은 후 조사에 임하였다. 남녀 노인 총 28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기재내용이 부실하다고 판정된 자료를 제외하고 24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사회적 관계 분석에는 남녀 노인을, 가사노동실태 분석에는 여자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설정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분할표분석, 일원 분산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적용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논의

##### 1. 노인단독가구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자 100명, 여자 144명으로 총 244명이며, 연령은 65-75세 미만이 42.3%로 가장 많고, 65세 미만(36.1%), 75세 이상(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력이 36.0%로 가장 많고, 국졸이 34.3%, 중졸 이상이 29.8%였다. 건강상태는 전체노인의 39.0%가 나쁜편인데, 남자노인(30.6%)보다 여자노인(45.8%)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별로 볼 때 전체 167가구(유배우가구: 58.1%, 무배우가구:41.9%)의 월평균소득은 20만원 미만이 24.4%, 20-40만원 미만이 20.7%로 45%정도가 40만원 미만이다. 그러나 80만원 이상이 25.9%나 되어 평균소득은 701,000원이다. 노인단독가구 지속년수는 5년 미만이 28.3%, 5-10년 미만이 27.7%로 10년 미만이 56.0%가 된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의 형성이유는 자녀결혼이 4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직장으로 인한 경우가 25.1%였다.

##### 2. 사회적관계

충북 노인 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는 빈도, 장소,

활동 내용, 만족도의 네 측면으로 나누어 실태 및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 1) 빈도

만남 빈도는 이웃·친구·자녀·친척의 순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가장 빈번했으며, 전화통화 빈도는 자녀·친구·이웃·친척의 순서로 자녀와 가장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1 참조). 즉 충북 단독가구의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만남은 이웃과, 전화통화는 자녀와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형제보다는 친구, 이웃을 자주 만난다는 선행연구(김태현, 1994)와 일치하고 있다.

〈표 1〉 만남과 전화 빈도 평균

영역 대상	자녀	친척	이웃	친구
만남	4.12	3.62	5.51	5.02
전화	5.01	3.84	4.18	4.55

관련변수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빈도 차이를 보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2참조). 먼저 연령에 있어서 이웃, 친척과의 만남 빈도가 65세 이상 집단과 65세 미만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65세 미만 집단이 65세 이상 집단보다 이웃·친구와의 만남 빈도가 적었다. 이것은 연령이 많은 노인들은 자녀들을 도와주는 등의 필요가 줄어들어 그대신 이웃, 친구와 자주 만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상과 국졸이하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이웃과 친구를 자주 만났고 학력이 높은 노인들은 자녀를 자주 만났다.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노인들은 친구를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들이 친구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나타내 준다. 단독가구 지속년수가 6년 미만의 집단이 자녀와의 만남과 전화통화가 많았는데 이는 단독가구를 형성한 기간이 짧은 집단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반면 단독가구 지속년수가 길어지면 자녀와의 관계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는 단독가구가 지속될수록 노인

〈표 2〉 관련변수에 따른 만남과 전화빈도

변수	구분	만남									전화		
		자녀			이웃			친구			자녀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연령	65세 미만	85	4.25		80	5.23	b	80	4.64	b	80	5.09	
	65-75세미만	96	4.09		91	5.60	a	84	5.19	a	95	4.99	
	75세 이상	52	3.94		48	5.81	a	48	5.38	a	46	4.93	
	계	233	4.12		219	5.51		212	5.02		221	5.01	
	F값	1.287			5.377**			6.486**			.428		
학력	무학력	85	3.98	b	79	5.82	a	74	5.30	a	79	4.89	
	국졸	76	3.93	b	71	5.68	a	73	5.12	a	74	4.97	
	중졸이상	72	4.47	a	69	4.89	b	66	4.59	b	68	5.21	
	계	233	4.12		219	5.51		213	5.02		221	5.01	
	F값	5.782**			14.199***			6.085**			2.191		
건강상태	나쁜편	89	4.00		81	5.64		81	5.32	a	82	5.05	
	보통	64	4.17		61	5.46		59	4.83	b	63	5.02	
	좋은편	77	4.22		74	5.39		71	4.83	b	74	4.99	
	계	230	4.12		216	5.50		211	5.02		219	5.02	
	F값	.953			1.136			3.827*			.083		
단독가구지속년수	6년 미만	111	4.30	a	98	5.59		97	5.19		106	5.20	a
	6-11년 미만	56	3.88	b	57	5.51		50	4.84		54	4.98	ab
	11이상	65	4.03	ab	63	5.38		66	4.91		60	4.72	b
	계	232	4.12		218	5.51		213	5.02		220	5.01	
	F값	3.133*			.749			1.596			5.114**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음.

D(DMR-test)의 부호는 평균점수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05 \*\* P<.01 \*\*\* P<.001

들이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웃과 친구를 자주 만났고, 학력이 높고, 단독가구 지속년수가 짧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많았다.

### 2) 만남장소

노인들은 자녀, 친척, 이웃, 친구와 주로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자녀와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만났으며 야외나 종교 시설인 경우는 전혀 없었다. 친척도 주로 집에서 만났지만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조금 많았다. 이웃과는 집과 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친구와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 집, 상업공간의 순으로 만나고 있었다.(표 3 참조)

만남 장소는 연령, 학력, 건강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나타냈으며, 단독가구지속년수에 따라

〈표 3〉 만남 장소

대상 장소	빈도(%)			
	자녀	친척	이웃	친구
집	241(98.7)	231(94.7)	114(46.7)	67(27.4)
야외공간	.	1 (0.5)	31(12.9)	28(11.6)
공공시설	2 (0.9)	5 (1.9)	80(32.9)	73(30.0)
상업공간	1 (0.4)	6 (2.4)	6 (2.4)	59(24.2)
종교공간	.	1 (0.5)	13 (5.2)	17 (6.8)

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4 참조).

65세 미만의 노인이 친척과 만날때는 상업공간에서, 이웃과는 집에서, 친구와는 집근처 야외공간에서, 65-7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 친척과는 종교 시설에서, 이웃과는 상업공간에서, 친구와는 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75세 이상의 노인은 친척과는 집근처 야외공간과 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에서, 이웃이나

친구와는 종교 시설에서 많이 만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력의 노인이 이웃과는 종교 시설, 친구와는 공공시설에서, 국졸 노인은 이웃과는 공공시설, 친구와는 종교시설에서, 중졸이상은 이웃과는 상업공간, 친구와는 집근처 야외공간에서 자주 만나고 있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친구와 만나는 장소에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이 나쁜편인 노인은 종교시설에서, 보통인 노인은 상업공간에서, 건강이 좋은편인 노인은 집근처의 야외공간에서 만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집에서는 65세 미만의 연령이 적은 노인이 이웃을 자주 만났으며, 집근처 야외공

간에서는 연령이 적고, 학력이 높고,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친구를 자주 만났다. 노인을 위한 공공 시설은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친구나 이웃을 만날 때 자주 이용하였으며, 상업공간은 중졸이상의 고학력 노인들이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는데 자주 이용하였다. 종교시설은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노인이 이웃, 친구를 만나는데 자주 이용하였다.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노인들 즉 환경이 열악한 노인들이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종교시설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련변수에 따른 만남 장소

변수	대상	친척						이웃						친구					
		1	2	3	4	5	전체	1	2	3	4	5	전체	1	2	3	4	5	전체
전체노인		94.7	0.5	1.9	2.4	0.5	100.0	46.7	12.9	32.9	2.4	5.2	100.0	27.4	11.6	30.3	24.2	5.2	100.0
연령	65세 미만	41.8	.	.	60.0	.	41.1	52.0	29.6	15.9	40.0	.	36.2	50.0	57.1	19.3	50.0	30.8	40.2
	65-75세 미만	42.9	.	.	40.0	100.0	42.0	33.7	.	.	60.0	100.0	41.4	28.8	33.3	49.1	41.3	15.4	37.6
	75세 이상	15.3	100.0	100.0	.	.	16.9	14.3	29.6	30.4	.	36.4	22.4	21.2	9.5	31.6	8.7	53.8	2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27.596$ d.f.=8 P< .001						$x^2 = 27.395$ d.f.=8 P< .001						$x^2 = 28.807$ d.f.=8 P< .001					
학력	무학력	32.1	.	75.0	40.0	.	32.9	33.7	29.6	44.9	20.0	45.5	37.1	34.6	18.2	49.1	15.2	38.5	32.6
	국졸	32.7	100.0	25.0	40.0	100.0	33.9	29.6	22.2	43.5	20.0	18.2	32.4	36.5	13.6	40.0	28.3	46.2	33.7
	중졸 이상	35.2	.	.	20.0	.	33.8	36.7	48.1	11.6	60.0	36.4	30.5	28.8	68.2	10.5	56.5	15.4	3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8.195$ d.f.=8 NS						$x^2 = 20.749$ d.f.=8 P< .01						$x^2 = 40.760$ d.f.=8 P< .001					
건강상태	나쁜편	34.4	.	33.3	40.0	100.0	34.6	33.7	29.6	49.3	20.0	30.0	37.7	47.1	22.7	50.0	17.8	53.8	38.5
	보통	28.7	.	33.3	60.0	.	29.3	26.5	40.7	23.9	40.0	30.0	28.0	23.5	9.1	26.8	42.2	23.1	27.3
	좋은편	36.9	100.0	33.3	.	.	36.1	39.8	29.6	26.9	40.0	40.0	34.3	29.4	68.0	23.2	40.0	23.1	3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7.203$ d.f.=8 NS						$x^2 = 8.408$ d.f.=8 NS						$x^2 = 27.486$ d.f.=8 P< .001					
단독가구 지속년수	6년 미만	51.3	100.0	25.0	20.0	.	50.0	57.7	44.4	30.4	20.0	45.5	45.5	55.8	45.5	45.6	39.1	38.5	46.3
	6-11년 미만	21.0	.	50.0	40.0	100.0	2.2	22.7	25.9	30.4	40.0	18.2	25.8	17.3	18.2	24.6	32.6	23.1	23.7
	11년 이상	27.7	.	25.0	40.0	.	27.7	19.6	29.6	39.1	40.0	36.4	28.7	26.9	36.4	29.8	28.3	38.5	3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 8.447$ d.f.=8 NS						$x^2 = 14.812$ d.f.=8 NS						$x^2 = 5.259$ d.f.=8 NS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음.

\* 1=집 2=야외공간 3=공공시설 4=상업공간 5=종교시설



3) 활동 내용

충북 단독가구 노인들은 주로 소일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표 5 참조). 자녀와는 소일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오락이나 취미활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척과는 소일활동, 식사의 순서였으며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은 없었다. 이웃과는 취미활동은 없었으나 다른 활동에 있어서는 자녀나 친척보다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는 소일활동, 식사를 비롯해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표 5〉 만남활동

대상 활동	빈도(%)				
	자녀	친척	이웃	친구	야외나들이
소일활동	224(91.6)	202(82.6)	181(74.2)	141(57.8)	
식사	16 (6.6)	37(15.0)	8 (3.3)	43(17.6)	
오락활동	.	3 (1.4)	41(16.9)	28(11.5)	
취미활동	.	.		10 (4.1)	
종교·사회 참여활동	1 (0.4)	.	12 (4.9)	17 (7.0)	
야외나들이	3 (1.3)	2 (1.0)	2 (0.8)	5 (2.0)	

관련변수별로 보면 연령, 학력, 단독가구 지속년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6참조)

연령별로 볼 때는 65세 미만의 노인이 친구와 야외 나들이를 많이 하였고 65-75세 미만 노인은 취미활동을, 75세 이상의 노인은 종교·사회참여활동을 많이 하였다. 학력이 낮은 무학력이나 국졸 노인은 친구와 오락활동을, 중졸이상의 노인은 친구와 야외 나들이를 많이 하였다. 단독가구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자녀를 만나서 하는 활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단독가구를 형성한지 6년 미만의 경우 야외나들이를 자주 하였고, 6-11년 미만의 경우는 소일활동을, 11년 이상은 종교·사회참여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대부분 소일활동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질때 그 활동 내용이 매우 단조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오락 활동은 학력이 낮은 노인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야외나들이는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노인들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전화통화 내용은 대부분 일상적 대화였으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주는 대화는 미미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관련변수별로 볼 때 단독가구 지속년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연령이나 학력,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단독가구 지속년수에 따라 친척과의 전화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단독가구 지속년수가 6년 미만인 경우 도움을 주는 대화에, 6-11년 미만은 일상적 대화에, 11년 이상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화에 많았다. 이는 단독가구로 오래 지낼수록 상황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 만족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만남의 경우 2.23, 전화통화의 경우 2.30, 친척과는 만남 2.21, 전화 2.10, 이웃과는 만남 2.46, 전화 2.06, 친구와는 만남 2.29, 전화 2.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특히 이웃과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화 통화에 의한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았는데, 이는 충북 노인단독가구의 형성 이유가 주로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직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는 데 대한 부족감과 단독가구라는 배경을 떠나서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녀 만남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전화통화는 자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변수에 따른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표 10〉과 같다. 연령에 따라 이웃, 친구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65세 미만인 노인이 65세 이상의 노인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인 노인과 국졸이상의 노인들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학인 노인들이 자녀만남, 자녀, 친척, 이웃, 친구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은 노인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다 많이 갖고 있어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불만족이 높

〈표 6〉 관련변수에 따른 만남 활동

변수		자녀							친구						
		1	2	3	4	5	6	전체	1	2	3	4	5	6	전체
전체 노인		91.7	6.6	.	.	0.4	1.3	100.0	57.9	17.4	11.6	4.2	6.8	2.1	100.0
연령	65세 미만	38.6	20.0	.	.	.	33.3	37.1	40.4	54.5	18.2	37.5	30.8	75.0	40.2
	65-75세미만	40.5	53.3	.	.	100.0	.	41.0	34.9	39.4	50.0	62.5	23.1	25.0	37.6
	75세이상	21.0	26.7	.	.	.	66.7	21.8	24.8	6.1	31.8	.	46.2	.	22.2
	계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7.548$ d.f.=6 NS								$\chi^2=20.340$ d.f.=10 P<.05							
학력	무학력	34.3	46.7	.	.	.	66.7	35.4	36.4	21.2	40.9	12.5	38.5	.	32.6
	국졸	33.3	33.3	.	.	100.0	.	33.2	34.5	21.2	50.0	25.0	46.2	.	33.7
	중졸이상	32.4	20.0	.	.	.	33.3	31.4	29.1	57.6	9.1	62.5	15.4	100.0	34.7
	계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005$ d.f.=6 NS								$\chi^2=28.816$ d.f.=10 P<.05							
건강상태	나쁜편	36.7	53.3	.	.	.	33.3	37.6	37.6	33.3	52.4	12.5	53.8	.	37.8
	보통	29.0	20.0	.	.	100.0	.	28.3	31.2	27.3	23.8	.	23.1	25.0	27.7
	좋은편	34.3	26.7	.	.	.	66.7	34.1	31.2	39.4	23.8	87.5	23.1	75.0	34.6
	계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6.005$ d.f.=6 NS								$\chi^2=18.196$ d.f.=10 NS							
단독가구 지속 년수	6년미만	49.3	20.0	.	.	.	100.0	47.8	50.0	48.5	36.4	12.5	30.8	100.0	46.3
	6-11년미만	24.4	20.0	.	.	.	.	23.7	25.5	12.1	18.2	25.0	38.5	.	
	11년이상	26.3	60.0	.	.	100.0	.	28.5	24.5	39.4	45.5	62.5	30.0	.	31.1
	계	100.0	100.0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14.006$ d.f.=6 P<.05								$\chi^2=18.023$ d.f.=10 NS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음

\* 1=소일활동 2=식사 3=오락활동 4=취미활동 5=종교·사회참여활동 6=아외나들이

〈표 7〉 전화 내용

내용	대상	빈도 (%)			
		자녀	친척	이웃	친구
일상적대화		234(95.9)	226(92.7)	235(96.2)	224(91.8)
도움요청		3 (1.4)	8 (3.4)	9 (3.8)	12 (4.8)
도움을 주는 대화		7 (2.7)	10 (3.9)	.	8 (3.4)

게 표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났는데, 건강상태가 좋은 편인 노인이 자녀와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이 좋은 경우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 지속년수에 따라서는 친척과의 전화 통화에서 차이가 났는데 단독가구를 형성한

지 11년 이상 되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웃,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 의한 관계에 만족을 하고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으며, 건강 상태가 좋은 노인이 자녀와의 만남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 3. 가사노동실태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은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태도, 가사분담, 가사노동기기 보유에 관한 실태 및 관련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여자노인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표 8〉 관련변수에 따른 전화 내용

변수		% N=244			
		친 척			
구분		1	2	3	전 체
전 체 노 인		92.7	3.4	3.9	100.0
연 령	65세 미만	43.6	16.7	57.1	43.3
	65세 - 75세미만	43.6	50.0	42.9	43.8
	75세 이상	12.7	33.3	.	12.9
	계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4.197 d.f=4 NS			
학 령	무학력	26.1	66.7	14.3	27.0
	국졸	35.2	16.7	71.4	36.0
	중졸이상	38.8	16.7	14.3	37.1
	계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8.860 d.f=4 NS			
건강상태	나쁜편	31.1	50.0	57.1	32.8
	보통	31.1	16.7	.	29.4
	좋은편	37.8	33.3	42.9	37.9
	계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4.583 d.f=4 NS			
단독가구 지속년수	6년 미만	50.0	33.3	100.0	51.4
	6년 - 11년미만	24.4	.	.	22.6
	11년 이상	25.6	66.7	.	26.0
	계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12.479 d.f=4 P<.05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음  
 \* 1=일상적 대화 2=도움요청 3=도움을 주는 대화

〈표 9〉 만족도 평균

영역 대상	자녀	친척	이웃	친구
	만남	2.23	2.21	2.46
전화	2.30	2.10	2.06	2.00

1) 가사노동시간

여자노인의 총 가사노동시간은 3.63 시간으로 20-50대 주부와 비교할 때 매우 적게 나타났으며, 노인단독가구의 여자노인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선행연

구의 결과 보다도 다소 적게 나타났다.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시간만을 보면 2.27 시간으로 선행연구의 여자노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노동시간에서의 비중은 전체 노동시간의 62.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여자노인의 가사노동의 주된 내용은 식생활과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시간은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사노동기기 보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있어서는 75세 이상 집단과 75세 미만의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75세 이상 집단이 2.71 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평균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시간을 다소 뒤흔는 수준을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세 집단이 모두 의미있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은 건강이 나쁜편인 집단과 건강이 좋은편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건강이 좋은 집단이 가사노동에 4.13 시간을 사용하는데 반해 건강이 나쁜편인 집단은 3.20 시간을 사용하였다. 즉 건강이 좋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노동기기 보유와의 관계를 보면 6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4.42 시간으로 5개 이하인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 이하인 경우의 2.89 시간은 6개 이상인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기기가 가정에 편입된다는 것은 가사노동시간의 단축과 관련된다고 논의되는데, 노인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신체적인 제약을 가사노동기기로 보완함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을수록, 가사노동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75세 이상이거나 무학력이거나 건강이 나쁜편이거나 가사노동기기 보유가 3개 이하인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가족 생활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지는 후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표 10〉 관련변수에 따른 만족도

변수	구분	만 남		전 화							
		자 녀		자 녀		친 척		이 웃		친 구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빈도	평균 D
연령	65세 미만	85	2.35	79	2.37	77	2.22	66	2.39 a	72	2.32 a
	65-75세 미만	95	2.21	94	2.31	87	2.10	77	1.94 b	77	1.86 b
	75세 이상	51	2.08	45	2.18	33	1.79	29	1.66 b	32	1.63 b
	계	231	2.23	218	2.30	197	2.10	172	2.06	181	2.00
	F값	1.881		.861		2.905		5.829**		5.366**	
학력	무학력	83	1.98 b	77	2.06 b	64	1.81 b	55	1.78 b	56	1.46 b
	국졸	76	2.29 a	74	2.38 a	67	2.22 a	59	2.10 ab	62	2.10 a
	중졸이상	72	2.47 a	67	2.49 a	66	2.24 a	58	2.29 a	64	2.39 a
	계	231	2.23	218	2.30	197	2.10	172	2.06	182	2.01
	F값	7.823**		6.294**		5.247**		3.191*		11.226***	
건강상태	나쁜편	88	2.14 b	81	2.26	67	2.03	60	1.95	62	1.77
	보통	63	2.13 b	62	2.21	58	2.03	50	2.06	55	2.00
	좋은편	77	2.43 a	73	2.42	71	2.20	61	2.21	64	2.22
	계	228	2.23	216	2.30	196	2.09	171	2.08	181	2.00
	F값	3.397*		1.480		.811		.888		2.411	
단독가구 지속년수	6년 미만	110	2.23	105	2.36	97	2.18 a	79	2.17	86	2.12
	6-11년 미만	55	2.25	52	2.25	45	2.22 a	47	2.06	44	1.90
	11년 이상	65	2.22	60	2.23	54	1.83 b	45	1.87	52	1.90
	계	230	2.23	217	2.30	196	2.09	171	2.06	182	2.00
	F값	.036		.664		3.400*		1.054		.762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만 제시하였음

D의 부호는 평균점수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05 \*\* p<.01 \*\*\* p<.001

## 2) 가사노동태도

전반적으로 여자노인의 가사노동의 세 영역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는 과반수 정도가 즐겁지도 귀찮지도 않게 여기는 편이지만, 40% 내외는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관련변수에 따른 가사노동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연령에 따라 가사노동태도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75세 이상인 집단이 75세 미만인 두 집단보다 가사노동태도가 부정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65세 미만 집단과 65-75세 미만의 두 집단간에는 의미있

는 차이가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가사노동태도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상태에 따른 가사노동태도는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집단과 좋은편인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집단이 좋은 집단보다 가사노동태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기기의 보유에 따른 가사노동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사노동기기를 5개 이하 보유한 경우가 6개 이상 보유한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개 이하 집단과 4-5개 보유한 집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상에서 학력 변수만을 제외하고 연령, 건강상태,

〈표 11〉 여자노인의 관련변수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변수	구 분	빈도(%)	평 균	DMR	F값
연령	65세미만	52(36.4)	4.14	a	6.758**
	65-75세미만	58(40.6)	3.72	a	
	75세이상	34(23.8)	2.71	b	
	계	143(100.0)	3.63		
학력	무학력	69(47.9)	3.03	c	9.941***
	국 졸	50(34.7)	3.90	b	
	중졸이상	25(17.4)	4.76	a	
	계	144(100.0)	3.63		
건강 상태	나쁜편	64(44.8)	3.20	b	3.433*
	보 통	39(27.3)	3.82	ab	
	좋은편	40(28.0)	4.13	a	
	계	143(100.0)	3.63		
가사 노동 기기 보유	3개이하	35(24.5)	2.89	b	8.528***
	4-5개	58(40.6)	3.43	b	
	6개이상	50(35.0)	4.42	a	
	계	143(100.0)	3.63		

DMR(DMR-test)의 부호는 평균점수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05 \*\* p<.01 \*\*\* p<.001

〈표 12〉 여자노인의 가사노동 영역별 가사노동태도의 전반적인 경향

영역	태도	빈도(%)				평균 점수
		마지못 해함	즐겁지도 귀찮지도 않음	즐겁게함	계	
청소 및 집안정리		61(43.3)	71(50.4)	9( 6.4)	141 (100.0)	1.63
식사준비 및 설거지		50(37.9)	69(52.3)	13( 9.8)	132 (100.0)	1.72
세 탁		52(37.7)	74(53.6)	12( 8.7)	138 (100.0)	1.71

가사노동기기 보유가 가사노동태도에 관련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고, 특히 75세 이상 집단, 건강이 나쁜편인 집단, 가사노동기기 보유가 5개 이하인 집단의 가사노동태도가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나 이

〈표 13〉 여자노인의 관련변수별 가사노동태도

변수	구 분	빈도(%)	평 균	DMR	F값
연령	65세미만	49(39.2)	5.37	a a b	4.550*
	65-75세미만	50(40.0)	5.12		
	75세이상	26(20.8)	4.27		
	계	125(100.0)	5.04		
학력	무학력	58(46.4)	4.72		2.644
	국졸	45(36.0)	5.20		
	중졸이상	22(17.6)	5.55		
	계	125(100.0)	5.04		
건강 상태	나쁜편	53(42.4)	4.64	b ab a	3.704*
	보통	36(28.8)	5.14		
	좋은편	36(28.8)	5.59		
	계	125(100.0)	5.04		
가사 노동 기기 보유	3개이하	29(23.4)	4.28	b b a	7.848***
	4-5개	50(40.3)	4.90		
	6개이상	45(36.3)	5.64		
	계	124(100.0)	5.02		

DMR의 부호는 평균점수의 크기의 순서에 따라 알파벳을 부여하였음.

\* p<.05 \*\* p<.01 \*\*\* p<.001

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겠다.

또한 가사노동기기의 사용 및 설비도 가사노동태도에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역별 가사노동기기 사용과 설비에 따른 가사노동태도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먼저 노인단독가구의 29.1%가 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기 유무에 따른 청소 및 집안정리 영역의 가사노동태도의 분포를 보면 청소기 유무에 따라 가사노동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기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을 즐겁게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식사준비 및 설거지 영역을 보면, 우선 부엌시설에 있어서 작업대의 경우 입식 부엌이 74.0%, 재래식 부엌이 26.0%를 차지하고 있다. 급수시설은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9.2%,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90.8%로, 그 중 비온수가 23.7%, 온수가 67.2%이다. 그리고 취사연료를 연탄 또는 석유로 사용하는 경우 19.1%, 가스 또는 전기로 사용하는 경우 80.9%로 나타났다. 이

〈표 14〉 여자노인의 가사노동영역별 관련변수에 따른 가사노동태도

영역 변수		가사노동태도				빈도(%)
		마지못해함	보 통	즐겁게함	전 체	
청소 및 집안 정리	청 소 기	없 음	50(38.2)	45(63.4)	5(55.6)	100(70.9)
		있 음	11(18.0)	26(36.6)	4(44.4)	41(29.1)
		계	61(100.0)	71(100.0)	9(100.0)	141(100.0)
	$\chi^2=6.592$ d.f.=2 p<.05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작 업 대	재래식	16(32.7)	17(25.8)		33(26.0)
		입 식	33(67.3)	49(74.2)	12(100.0)	94(74.0)
		계	49(100.0)	66(100.0)		127(100.0)
		$\chi^2=5.348$ d.f.=2 N.S.				
	급수 시설	없 음	5(10.0)	7(10.3)		12( 9.2)
		비온수	18(36.0)	12(17.6)	1( 7.7)	31(23.7)
		온 수	27(54.0)	49(72.1)	12(92.3)	88(67.2)
		계	50(100.0)	68(100.0)	13(100.0)	131(100.0)
	$\chi^2=9.738$ d.f.=4 p<.05					
	취사 연료	연탄·석유	6(12.0)	14(20.6)	5(38.5)	25(19.1)
가스·전기		44(88.0)	54(79.4)	8(61.5)	106(80.9)	
계		50(100.0)	60(100.0)	13(100.0)	131(100.0)	
$\chi^2=4.886$ d.f.=2 N.S.						
세탁	세탁 기 사용	전혀사용안함	11(28.9)	5( 9.1)		16(15.7)
		가 끄	14(36.8)	22(40.0)	3(33.3)	39(38.2)
		자 주	13(34.2)	22(40.0)	4(44.4)	39(38.2)
		매 일		6(10.9)	2(22.2)	8( 7.8)
		계	38(100.0)	55(100.0)	9(100.0)	102(100.0)
	$\chi^2=13.626$ d.f.=6 p<.05					

러한 사실은 최근 노인가구의 부엌시설이 크게 개선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식생활관련 가사노동태도를 보면, 작업대 취사연료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급수시설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급수시설이 없거나 비온수의 경우 가사노동태도가 부정적인데 반해 온수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가사노동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시설마련을 통해 가사노동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탁 영역에 있어서 세탁기 사용 빈도를 보면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세탁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15.7%나 되어 노인단독가구의 기기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세탁기 사용빈도와 세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부정적인데 반해, 세탁기 사용빈도가 많은 경우 세탁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기나 세탁기와 같은 기기의 사용이 긍정적인 가사노동태도와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 가사분담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분담의 실태는 영역별로 가사노동 분담원과 가사노동 주담당자에게 주는 도움내

용을 중심으로 보았다(표 15 참조).

〈표 15〉 가사노동영역별 가사분담원

영역 분담원	빈도(%)		
	청소 및 집안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 탁
할 머 니	142(98.6)*	141(98.6)	138(96.5)
할아버지	49(34.0)	15(10.5)	11( 7.6)
며 느 리	11( 7.6)	6( 4.2)	1( .7)
딸	15(10.4)	7( 4.9)	16(11.1)
다른가족	0( .0)	3( 2.1)	3( 2.1)
이 윗	0( .0)	1( .7)	2( 1.4)
없 음	63(43.8)	106(75.7)	94(66.2)

\* 각 칸은 개별적인 응답으로 각 칸별 전체 응답에서 각 분담원의 수행여부를 나타낸 것임.

가사분담원을 보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는 할머니이고,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주된 분담원은 할아버지와 딸로 나타났다는데, 영역별로 보면 청소 및 집안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는 주로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편이고, 세탁은 딸의 도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세 영역 중에서 청소 및 집안정리 영역에 대한 할아버지의 도움이 가장 두드러진데 반해 다른 두 영역의 경우는 낮다. 이것은 청소나 집안정리는 남성들과 어느 정도 공유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다른 두 영역은 가정내에서 전형적인 여성노동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식사준비와 달리 세탁은 가구원외의 도움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외부지원체계의 가사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된 노인단독가구의 경제적, 정서적, 가사서비스 측면의 사회적 지원 수혜 정도를 살펴보면(지면관계상 표를 제시하지 않았음.) 경제적 지원은 21.4%, 정서적 지원은 7.9%인데 반해 가사서비스(.0%)는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분야

(home help)의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로 가사분담원이 가사노동 주담당자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청소 및 집안정리 영역에서는 방쓸기를, 식사준비 및 설거지 영역에서는 상차리기를, 세탁 영역에서는 세탁기돌리기와 손빨래하기에서 보다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사노동영역별 도움내용

영역	빈도(%) n=144				
	청소 및 집안정리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 탁		
방 쓸 기	32(22.2)	다 들 기	7( 4.9)	세탁기돌리기	22(15.5)
방 닦 기	21(15.0)	조리하기	9( 6.3)	손빨래하기	19(13.2)
마당쓸기	26(18.2)	상차리기	12( 8.5)	빨래널기	10( 7.0)
정리정돈	22(15.5)	설 거 지	11( 7.7)	빨래걸기	11( 7.7)
쓰레기버리기	26(18.2)	기 타	15(10.6)	기 타	4( 2.8)
기 타	5(3.5)				

#### 4) 가사노동기기 보유 실태 및 방법

가사노동기기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그 구매욕구가 크게 증가하여 가계의 생활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가사노동기기의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기기들은 필수 내구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이러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충북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기기 보유 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노동기기의 보유율은 전자레인지와 청소기를 제외하고 70%를 상회하고 있어 노인단독가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구재들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냉장고와 가스레인은 대부분의 노인단독가구가 보유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평균 가사노동기기의 수는 4.8개로서 5-6년 전(조희금,1989)과 비교하면 매우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기기의 보유 유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유방법 또한 기기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기기를 구입할 때의 기기의 상태를 살펴보면, 비교적 신제품으로 구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냉장고와 세탁기의 신제품 구입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한 자녀 등이 사용하던 것을 노부모에게 제공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런데 여자노인의 기기사용방법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 결과 기기사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42% 정도이며,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아는 정도가 58%로 나타났다. 또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버리거나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신제품이 아닌 기기사용에 대비한 사용 및 수리방법을 습득시킬 필요가 있겠다.

기기의 구입방법에 있어서는 대체로 50-60%가 직접구입을 했으나, 냉장고의 직접구입율은 가장 낮은 편이다. 사서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자레인지이며, 쓰던 것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냉장고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충북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기기 보유 실태는 양호한 편이나 기기관리에 있어서는 기기 사용지식 및 고장이 났을 때의 처리 방법 등에 있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V. 결론 및 제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 노인 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과의 만남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며, 전화 통화는 자녀와 가장 많았는데 단독 가구 노인들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접 만남 보다는 전화 통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주로 집이었으며 이웃과 친구와는 노인정·마을회관과 같은 노인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음식점·다방·주점과 같은 상업공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이 매우 단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을 무료하게 만드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관계의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자녀와 친척과는 주로 소일활동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웃과는 소일활동외에 화투등과 같은 오락활동도, 친구와는 소일활동, 오락활동 이외에 식사, 취미활동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지만 장소와 마찬가지로 매우 단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직접 만남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이웃과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자녀와 친척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단독가구라는 배경보다는 자녀나 친척과 같은 혈연관계의 대상에게는 부양 기대가 큰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관련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하기 쉬운 계층인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쁜편인 노인이 이웃이나 친구를 자주 만나며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시설을 자주 이용하며 화투 등 오락활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

〈표 17〉 가사노동기기 보유 실태 및 방법

기기명	보유빈도	신제품구입	구 입 방 법				계
			직접구입	사서받음	쓰던것받음	기 타	
냉장고	136(93.1)	99(72.8)	58(42.6)	47(34.6)	30(22.1)	1( .7)	136(100.0)
전자레인지	42(28.0)	38(90.5)	26(61.9)	16(38.1)			42(100.0)
가스레인지	134(93.1)	118(88.1)	74(55.2)	47(35.1)	13( 9.7)		134(100.0)
전기밥솥	129(88.9)	111(86.0)	71(55.0)	42(32.6)	14(10.9)	2( 1.6)	129(100.0)
세탁기	102(70.1)	81(79.4)	52(51.0)	33(32.4)	17(16.7)		102(100.0)
다리미	106(73.6)	93(87.7)	68(64.2)	26(24.5)	12(11.3)		106(100.0)
청소기	42(27.2)	40(95.2)	27(64.3)	13(31.0)		2( 4.7)	42(100.0)



계를 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가질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된다.

충북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 실태를 보면, 가사 노동은 거의 여자노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남자 노인과 딸이 약간 도우줄 뿐이며, 사회적인 지원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가사 노동시간은 평균 3.63 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사노동기기 보유율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에 보다 적은 시간을 쓰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마지못해 하는 비율이 40% 내외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사노동기기 보유율이 낮을수록 가사노동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가사노동태도는 청소기 보유, 부엌의 급수시설, 세탁기 사용빈도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의 가사노동기기의 보유실태와 그 방법을 살펴보면, 기기 보유율이 크게 개선되어 보유율이 높으나 직접구입하지 않고 사서 받거나 쓰던 것을 받은 비율이 적지 않고, 기기관리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단독가구의 여자노인이 75세 이상이거나 건강이 나쁜 경우 가사노동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특히 가사노동의 보조 수단으로서 가사노동기기가 없거나 가사분담원으로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원이 없는 경우 그 상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확대시키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함께 가사노동기기에 대한 지식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모색도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사회적 관계 및 가사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충북 노인단독가구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기 쉬운 노인들이 자주가는 노인정 등 노인을 위한 시설 향상에 대한 배려와 다양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장소가 노인들의 여건에 맞게 제공되어야 된다.

둘째, 사회적 관계 내용에 대한 보다 활력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겠다. 특히 이웃과 친구간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과 아울러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가사노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단독가구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지양하고 가사노동환경이 열악한 노인단독가구에 세탁, 집 안팎의 청소, 정기적인 식사제공 등의 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성들의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적인 교육과정의 운용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가사노동기기는 가사노동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가사노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기기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노인단독가구를 위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정기적인 무료 점검·수리의 지원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20-50대 연령층의 주부에 국한되어 왔지만, 앞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추세를 예상할 때 연령층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가 다른 형태의 가구보다 가사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사노동환경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태도 1, 대한가정학회지 6, 133-141.
- 2) 김태현(1981). 한국에 있어서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3)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단독 가구 여자 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 공모과제.
- 4) 서병숙·김유정(1993). 농촌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80-92.
- 5) 서병숙·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6) 심 영 외(1996).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 7)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74-87.
- 8) 윤 희·한경혜(1994). 노년기 형제 지원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노년학 14(1), 117-139.
- 9) 이가옥 외(1989). 노인 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 연구원.
- 10) 이정수(1990). 여자노인의 생활행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60주년 기념 교수 논문집.
- 11) 임선영·김태현(1994). 노년기 형제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4(1), 33-49.
- 12) 정경희(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5(2), 52-68.
- 13) 조명희(1996). Etude sur les conditions de vie et les besoins des personnes âgées en Corée,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조희급(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45-162.
- 15) 채옥희(1991). 노년기 주부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와 기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13-130.
- 16)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 노년학 12(1), 65-78.
- 17) 충청북도(1995). '96 주요업무계획 -노인복지사업.
- 18) 한은진·채옥희(1995). 단독가구노인의 가사노동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02-114.
- 19)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20) 허병이(1995). 도시 지역 노인을 위한 근린 생활환경 계획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2), 3-17.
- 21)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Mass: Allyn and Bacon, Inc.
- 22) Yoshiori, Kamo(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 23) Zay, Nicolas(1981), Dictionnaire · manuel de gérontologie social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24) 仙田裕子(1993). 高齢子の 生活空間, 地理學評論 66A-7, 383-400.